

다자주의 관점에서 본 근대 일본의 지역통합론*

－ 일방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金 慶 一**

多国間主義は、國際政治理論のひとつであり、脱冷戦後の國際社会での一般的な協力の形となっている。多国間協力を通じて共同の利益を追求する多国間主義の究極の目標は、國際社会の安定と平和である。多国間主義は自発性、平等性、多様性という基本的な原理と共通の利害関係及び、原則と制度、包括的互惠性という構成要素を持っている。これらの概念は、國際社会の普遍的価値とすることができ、近代日本が追求した地域統合論の仕事国防総省を分析する準拠になることがある。本研究では、アジア主義の理念に基づいている、アジア連帯論と五族協和、東亜連盟、東亜共同体、大東亜共栄圏を包括する、大東亜共栄論という近代日本の地域統合の論理らに対し、多国間主義という國際政治理論を適用して分析し、これにより近代日本の地域統合論が内包している国防総省をより体系的に解明してみようとした。また、このような考察に基づいて、21世紀の東アジアの地域的協力和統合が目指すべき普遍的価値を提示した。

キーワード：地域統合、多者主義、一方性、日本、東アジア
(지역통합, 다자주의, 일방성, 일본, 동아시아)

1. 서론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국제사회에서 일반화된 협력의 형태이며, 다자주의적 가치들은 국가 간 관계의 보편적인 원리로 인식된다. 개념적으로 다자주의는 3개국 이상이 합의된 원칙에 기초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제적 협력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18S1A5B5A07073582)

** 金鳥工科大学校 教養教職課程部 外來教授, kimkidr@naver.com

여기에는 자발성과 평등성 그리고 호혜성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들을 전제로 한다.¹⁾ 또한 다자주의는 다양성과 개방성을 지향하며,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평화를 목표로 한다. 탈냉전 이후 관련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들이 급격히 증대하면서 이익의 비분할성(Indivisibility)이 커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제관계에서 다자주의적인 협력방식이 확대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²⁾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다자주의는 공존공영을 목적으로 한 지역통합의 원리로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지역적인 통합이 현실화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지역에서도 통합을 모색하는 시도가 있지만, 진행양상이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자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인 자발성(自發性)은 위협과 강요 그리고 조작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타국에 의한 주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평등성(平等性)은 국가 간의 수평적인 관계와 비차별적인 대우를 의미하는데, 국력의 차이와 무관하게 실제로 동등한 지위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호혜성(互惠性)은 결과적으로 이익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 간 상대적 이익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자주의에서는 특히 포괄적 호혜성(Comprehensive Reciprocity)을 강조하는데, 이는 대상이나 시간 그리고 시기의 제한 없이 이익이 공유되는 것을 의미한다.³⁾ 또한 다양성은 국가별 특수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며, 맹목적인 동질성보다는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개방성은 대외적으로 폐쇄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며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자주의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 국가 간 관계의 일방성(一方性)이며, 국제관계에서 일방성은 우월성과 자기중심

1) John G. Ruggie ed.(1993)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Columbia University Press, pp.8-14; James A. Caporaso(1992)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multilateralism: the search for found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3), pp.601-602.

2) John G. Ruggie(1996) *Winning the Peace: America and the World Order in the New Era*, Columbia University Press, pp.20-21.

3) John G. Ruggie(1993) *op. cit.*, pp.53-56.

성을 바탕으로 호혜적인 협력을 거부하고 강제적 수단을 통해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국가행태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강제성, 위계성, 이기성, 획일성, 배타성이라는 비평화적인 특성들이 포함된다.⁴⁾

근대 일본은 구미열강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침탈을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종과 문화적 동질성에 토대를 둔 지역통합을 구상하였다. 19세기 말부터 194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는 다양한 지역통합론들이 등장하였는데, 아시아연대론과 대동합방론 그리고 대동아공영권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역통합논리들에 대하여 국제관계의 보편적 원리로 인식되는 다자주의적 가치들을 투영해 봄으로써 그 본질적인 의미를 논구해 보고자 한다. 당시 일본의 지역통합론들은 대체로 일방성이라는 부정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평가되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적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나타난 결과에 끼워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통합논리들의 전개과정 전반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

현재 일반성이 점증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 국제정세를 고려해 볼 때, 근대 일본의 지역통합론들이 내포하고 있었던 일방성에 대해 고찰해 보는 일은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일본이 범한 오류를 지금 동아시아국가들도 되풀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지역강대국들의 행태는 근대 일본이 시도하였던 일방적인 지역통합정책과 유사한 측면들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퇴행적인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 지역 국가들은 암울한 미래를 맞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근대 일본의 지역통합논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방성에 대한 분석은 현재 동아시아지역의 부정적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4) 김경일(2003) 「6자회담과 다자주의: 일방성과 다자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6(2),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pp.39-41.

2. 아시아연대론의 일방성

아시아주의(アジア主義)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는 아시아연대론(アジア連帶論)은 자유민권론자들을 중심으로 근대 일본의 많은 지식인들이 주창하였던 지역통합논리이다. 구미열강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침탈을 역내 국가들의 단합된 힘으로 막아보고자 했던 아시아연대론은 인종과 문화 측면의 지역적 동질성을 연대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기독교사상 등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유민권론자들의 아시아연대론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보편적 가치로 인식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도 자발성과 평등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다자주의적 가치와 일치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월의식이라는 자기중심적인 가치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⁵⁾

아시아연대론자들은 아시아를 매우 후진적인 지역으로 간주하였으며, 아시아에서 근대화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역내 국가들을 교화와 지도의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즉 일본의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설정한 지역적 불평등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시아연대론자였던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개화하여 앞선 위치에 있으며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역내의 미개하고 열등한 국가들을 이끌어 갈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⁶⁾ 더욱이 오이 겐다로(大井憲太郎)는 당시 한국을 야만적인 국가로 평가하면서 일본이 한국을 병탄(並呑)한 것은 한국의 발전을 돕기 위한 일이라는 억지스러운 논리를 펼치기도 하였다.⁷⁾

5) 박한규(2004) 「아시아주의를 통해 본 전전 일본의 동아시아 정체성」 『일본연구논총』(20), 현대일본학회, pp.214-215.

6) 大隈重信(1912) 『經世論』 富山房、p.38.

7) 竹内好編(1977) 『現代日本思想大系9』 筑摩書房、p.30.

아시아연대론에 내재된 우월의식은 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이 지도국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지역적 리더십(Regional Leadership)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 냈다. 이는 지역적 연대에 관한 논의에서 역내 국가들의 자주성을 경시하고 강제성을 내포한 지역통합논리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였다. 실제로 아시아연대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중심적인 일본맹주론과 국가주의를 결합한 대아시아주의 그리고 아시아를 멸시하는 탈아론(脫亞論)으로 변질되어 갔다. 요컨대 아시아연대론이 등장 초기에 자발성과 평등성을 일정 부분 고려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근대 일본의 일방적 아시아인식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연대론이 일방적인 지역통합논리로 변한 주된 요인은 일본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신장되면서 전략적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결과가 일본의 대외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양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일본은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지역연대보다는 지역지배로 사고를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그 자체로 아시아연대론에 반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청일전쟁은 연대가 아닌 침략을 의미하며, 러일전쟁은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아닌 영국과 미국이라는 해양세력들과의 연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일본의 대외정책은 구미열강과 다를 바 없는 제국주의노선을 걷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시아연대론은 동양과 서양을 대립적인 관계로 상정하고, 서양이 공세적인데 비해 동양은 수세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였다.⁸⁾ 아시아연대론의 일차적인 목표는 이 지역 국가들의 협력과 결속이었으며, 나아가 지역의 통합된 힘으로 구미열강에 대항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산업국가로 나아가게 된 일본은 아시아지역 국가들을 대등한 협력의 상대로 인식하지 않았다. 즉 역내 국가들을 일본의 이해관계에 종속시켜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는데, 아시아연대론에서도

8) 沢柳政太郎(1919)『亜細亜主意』大鏡閣、p.45.

이러한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결국 아시아를 위한 일본이 아니라 일본은 위한 아시아로 논의가 전개되면서, 아시아연대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본의 국익으로 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동양과 서양의 대립구도는 일종의 옥시덴탈리즘(Occidentalism)으로 볼 수 있으며, 근대 일본지식인들의 자의적인 설정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역적 동질성은 비과학적인 추론이며 아시아지역의 다양성을 무시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연대론자들이 가장 역점을 둔 사안은 중국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일본과 중국의 제휴를 지역연대의 핵심으로 판단하였으며, 양국이 마치 순치보거(唇齒輔車)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시아연대론자들은 중국과의 연대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여기에는 일본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우선적인 목표가 전제되어 있었다. 즉 아시아연대론이 구미열강의 침탈에 대한 공동방위라는 목적을 표방한 논리였지만, 그 저변에는 일본의 국익이라는 자기중심적인 가치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연대론자들이 언급한 중국과의 제휴는 본질적으로 위계적이고 이기적인 관계의 구축을 의미한다. 이는 다자주의적 가치인 수평성과 호혜성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연대론자들은 동아시아지역을 황인종의 영역이라고 단정하면서, 당시 이 지역을 경영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는 비이성적인 견해를 표명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일본의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행태로 이어졌다. 예컨대 스즈키 텐칸(鈴木天眼)은 한국이 일본의 세력 확대에 필수적인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중국이나 러시아에 넘겨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지극히 일국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⁹⁾ 지배와 연대를 혼동한 것이 아니라면 지배를 연대로 포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아시아연대론자들이 주권존중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9) 塙薰藏(1924) 『浦敬一奥附』 淳風書院、pp.176-177.

한국과 중국에 대한 아시아연대론자들의 인식은 청일전쟁을 계기로 급변하였는데, 이는 아시아연대론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국적인 질서를 아시아연대의 방해물로 판단하고 중국을 적대시하였으며, 한국을 지역연대의 디딤돌 정도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영향권에서 한국을 분리하여 확실하게 일본의 통제 하에 둬으로써 아시아연대의 첫 단계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일본의 안보적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아시아연대론자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하였다.¹⁰⁾ 즉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세력권에 편입된다면 아시아연대는 물론이고 일본의 생존마저도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연대론자였던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는 청일전쟁의 목적이 중국세력을 한국으로부터 축출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일부이긴 하지만, 아시아연대론자들은 일본과 한국이 통합하여 중국을 정복하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요컨대 아시아연대론자들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한국과 중국을 연대가 아닌 지배와 침략의 대상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 후 일본은 한국을 병탄하고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야기하면서 중국을 침략하였다. 사실 아시아연대론과 일본의 대외정책은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전개되었는데, 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전쟁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대 일본이 야기한 전쟁은 아시아연대론이 내용적으로 수정되었던 전환점이었던 것이다.

다자주의 관점에서 볼 때, 근대 일본의 아시아연대론은 치명적인 한계를 가진 지역통합논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시아연대론이 내포한 일방성은 다자주의적 가치와 상치되며 일본의 입장과 이익만을 생각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¹¹⁾ 호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지역통합논리는 비현실적이며 공허한 이론체계이다. 지역통합은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합의에 이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시아연대론자들을 이를 간과하였던 것

10) 日本史籍協會編(1969)『大久保利通日記2』東京大学出版会、pp.339-340.

11) 内田良平(1936)『統国体論及国史論集2』皇極社出版部、pp.5-6.

이다. 당시 아시아 각국이 처했던 어려운 상황은 본질적으로 국내적인 문제점들에 기인하고 있었으며, 지역통합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시아연대론자들은 구미열강의 침탈을 강조하면서 지역통합만이 불가피한 방안이라고 내세웠던 것이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군사력을 수단으로 한 강제적인 통합은 전쟁을 통한 정복에 지나지 않으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지역통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3. 대동합방론의 일방성

대동합방론(大東合邦論)은 19세기 말 다루이 도키치(樽井藤吉)가 제시한 동아시아 지역통합 논리이다. 아시아연대론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다루이 도키치는 보다 구체적인 지역통합 방안으로 대동합방을 주장하였다. 그는 당시 구미열강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침탈에 맞서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의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일본과 한국이 합방하여 대동국(大東國)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며 나아가 대아시아연방을 실현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¹²⁾ 이러한 다루이 도키치의 대동합방론은 당시 커다란 국가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한국과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다루이 도키치는 다양한 정치적 행태를 표출하였지만, 그의 주된 관심 사안은 지역통합이었다. 그가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집중하였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국가적 이해관계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구미열강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식민제국주의정책의 부정적인 여파가 일본에게도 닥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고안된 것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다루이 도키치는 대동합방이 구미열강의 침탈에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이 공동으

12) 樽井藤吉(1975) 『復刻大東合邦論』 長隆書林、p.208.

로 대항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고, 나아가 그가 동아시아 번영의 토대로 상정한 대아시아연방의 첫 단계임을 밝혔다.¹³⁾

대동합방론에서 다루이 도키치는 서구와 다른 동아시아의 문화적, 인종적 특성을 부각시키면서 서구를 적대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이른바 동문동종(同文同種)을 바탕으로 하는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단결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필요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질성의 강조는 대체로 우월성과 배타성으로 이어지는데 대동합방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다루이 도키치는 동아시아의 강점을 화합(和合)이라고 전제하면서, 분열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월등한 힘을 가진 서구를 이길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그는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단결이 서구제국주의국가들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는 점을 동아시아의 가치를 동원하여 논증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다루이 도키치는 다섯 가지 범주로 인종을 분류하면서 문명적 측면에서 황인종의 우수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적어도 영토와 인구 규모 면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서구의 어떤 국가보다도 크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그는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서로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약화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분열된 아시아는 서구세력들에 의한 지역적 몰락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에 앞서 자멸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루이 도키치는 중국과 인도가 아시아지역의 대국임을 인정하였지만, 양국의 국가적 능력은 낮게 평가하였는데, 여기에는 각각 아편전쟁의 결과와 국내적 분열 상황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결국 일본이 아시아지역의 중심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대동합방론의 최종 목표는 대아시아연방을 이룩하는 것이며, 그 첫 번째 단계는 일본과 한국의 합방이다. 다루이 도키치는 일본과 한국이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 유대 측면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양국이 결속하여 공동으로 국제정세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본과 한국의 합방은 필연적이며 당위적인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다루이 도키치의 주장

13) 加田哲二(1933) 『明治初期社会思想の研究』春秋社、p.159.

에는 일본과 한국의 합방이 대동합방의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인식과 한국을 대아시아연방 구축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는 전략적 사고를 내포하고 있다. 근대 일본이 자행한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침략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다루이 도키치의 구상은 상당한 실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일본은 한국을 병탄하고 이를 발판으로 만주와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침략의 범위를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지 못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근대 동아시아 지역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요컨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병탄은 일본이 추진했던 대동아공영권 구축에서 이른바 린치핀(Linchpin)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루이 도키치는 일본과 한국의 합방이 일본의 대륙진출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특히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교역과 이 지역의 천연자원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즉 그는 이 지역의 통상과 필수자원들을 일본이 통제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경제기반 측면에서 동아시아지역의 불리한 상황을 구미열강과 비교하면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만주를 포함한 중국의 통합을 주장하였다.¹⁴⁾

다루이 도키치는 당시 서구제국주의국가들이 가진 식민지와 부강함을 선망하면서, 광대한 영역의 확보가 부국강병의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는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이 통합하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서구세력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무엇보다도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경제적 기반의 중요성에 대한 과도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루이 도키치는 일본의 대외정책방향을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맞추어야 하며, 동북아시아지역의 통합을 공고히 한 후에 동남아시아지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⁵⁾

대동합방론에서 다루이 도키치가 일본과 한국의 합방에 우선적

14) 樽井藤吉著・影山正治訳(1963)『現代訳大東合邦論』大東塾出版部、p.25.

15) 河西晃祐(2005)「外務省『大東亜共栄圏』構想の形成過程」『歴史学研究』青木書店、p.11.

인 관심을 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수평적인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당시 일본과 한국이 구미열강의 위협이라는 공통된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며, 형제와 같은 관계에 있는 양국이 당면한 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다루이 도키치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기저에는 우월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실제로 다루이 도키치는 한국을 가난하고 낙후한 국가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을 무지하고 야만적인 족속이라고 평가하였다. 더욱이 양국의 합방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본이 한국에게 베푸는 은혜라고 주장하였다.¹⁶⁾

다루이 도키치의 대동합방론은 소위 동문동종이라는 지역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합방은 유교문화와 황인종으로 대변되는 동문동종통합의 주춧돌(Cornerstone)이었으며, 지역통합의 성패가 달려 있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다루이 도키치가 일본과 한국의 합방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여긴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는 일본과 한국의 합방이 동아시아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당시 한국의 이용구와 송병준은 이러한 논리에 동조하여 동아시아지역이 단결하여 하나의 연방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⁷⁾ 이는 다루이 도키치의 대동합방론이 한국정치인들의 대외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루이 도키치는 일본과 한국의 합방을 합리화하였던 논리를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여 적용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통합을 강조하였다. 사실 그는 대동합방론을 제시하기 전부터 여러 아시아주의자들과 함께 상하이(上海)에 동양학관(東洋學館)을 설립하여 중국에 대한 연구와 정보수집 활동을 하였다. 다루이 도키치는 당시 중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일본과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으며, 공동으로 지역적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일본과 한국의 합방에 중국

16) 樽井藤吉著・影山正治訳(1963) 前掲書, pp.75-76.

17) 内田良平(1932) 『日本之亜細亞』 黒竜会出版会, pp.253-254.

의 동참을 촉구하였으며, 일본과 중국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구미열강의 공세에 대응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⁸⁾ 당시 중국의 사상가로 활동하였던 량치차오(梁啓超)는 다루이 도키치의 대동합방론을 대동합방신의(大東合邦新義)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였다. 이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대동합방론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대동합방론이 동아시아의 지역적 통합을 주장하는 논리이며, 공동방위를 통하여 지역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겉으로 표방하는 바와는 달리 대동합방론은 다분히 일방성을 내포한 일국중심의 팽창논리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다루이 도키치의 대동합방론은 일본의 왜곡된 우월성을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당시 일본은 동아시아지역에서 문명적으로 가장 진보한 국가이며,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은 열등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허구적인 역사와 연결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동합방론은 타국의 이해관계를 일본의 국익에 투영하여 규정하는 강한 자기중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 각국의 이익이 일본의 국익과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다루이 도키치는 역내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대동합방론에서 다루이 도키치가 주장한 합방을 통한 공동이익 추구는 국가 간 관계의 호혜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통합이 역내 국가들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으며, 자의적으로 해석된 무리한 논리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가 간 관계에서 상대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호혜성의 확보는 매우 어려운 사안인데, 이를 단순화하여 주장하는 것은 국제관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다. 특히 다루이 도키치의 대동합방론에서 주의를 기울여서 보아야 할 부분은 자발성을 무시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지역통합의 과정에서 강제적 수단도 불사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으며, 실제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병탄을 적극 지지하는 행태를 보

18) 安部博純(1989) 「<大東亞共榮圈>構想の展開」 『法政論集』16(3・4)、北九州大学法学会、p.96.

었다. 이는 마치 전쟁을 외교의 연장으로 보았던 클라우제비츠(Karl Clausewitz)식 가치관을 연상케 한다. 결과적으로 다루이 도키치의 대동합방론은 소위 일본맹주론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대동아공영론의 일방성

대동아공영론(大東亞共榮論)은 근대 일본의 팽창정책이 본격화하는 1930년대 이후 등장한 동아시아 지역통합 논리이다. 여기에는 민족협화론(民族協和論), 동아연맹론(東亞連盟論), 동아협동체론(東亞協同體論), 대동아공영권론(大東亞共榮圈論)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민족협화론은 일본의 만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동아시아 5개 민족, 즉 일본, 중국, 한국, 만주, 몽골의 협력과 결속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민족협화론은 1931년 만주사변과 1932년 만주국 수립을 배경으로 등장한 지역통합 논리이다.¹⁹⁾ 근대 일본은 만주를 자국경제의 사활이 걸린 지역으로 인식하였으며, 이 지역을 반드시 일본의 영향권 하에 두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에 빠져 있었다.

민족협화론은 만주지역과의 경제적 연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당시 일본정부의 정책기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즉 일본은 만주에서 혼란이 야기된다면 자국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지역과 관련된 5개 민족의 통합을 도모하였으며, 나아가 오족연합(五族聯合)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당시 일본은 영국과 미국의 광대한 경제영역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경제권 구축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민족협화론은 그 권역을 구성하는 5개 민족의 관계를 규정하고 내부적 통제를 목적으로 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²⁰⁾ 아울러 일본은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고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을 준

19) 임성모(1996) 『만주국 분단지배와 국민동원의 견인차』 『민족문제연구』13, 민족문제연구소, p.24.

20) 松沢哲成(1979) 『アジア主義とファシズム』 れんが書房新社, pp.154-159.

비하는 한편, 미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오족연합과 같은 지역적 통합이 필요하였다.²¹⁾

오족연합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은 민족협화운동이라는 정치적 캠페인(Campaign)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만주지역에서 자국의 정책적 목표는 교화와 계몽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민족협화의 사상적 기반이 황도주의(皇道主義)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천손강림(天孫降臨)이라는 선민의식(選民意識)을 바탕으로 주변민족들을 동화(同化)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민족협화론이 일본의 우월적인 지위를 전제로 하며, 허구적인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일본의 만주정책 추진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의 경우 민족협화의 논리를 확대하여 만주와 몽골을 일본의 영토화하려는 구상을 밝히기도 하였다.²²⁾

민족협화론이 만주지역에 대한 일본의 우월적이고 독점적인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민족협화론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지역통합과는 거리가 먼 위계적이고 배타적인 세력권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민족협화론은 제 민족의 조화보다는 획일화에 초점을 맞춘 전체주의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적 가치를 매개로 한 민족적 동화를 강조한 부분에서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다. 민족협화론은 근대 일본의 지역통합론에서 인종적 요소와 경제적 집단주의(Collectivism)를 강화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지역통합에서 민족적 측면은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민족협화론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단순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연맹론(東亞連盟論)은 만주국 건국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던 시기에 등장한 동아시아 지역통합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은 만주국이 명백한 주권국가이며 만주국

21) 大畑篤四郎(1993) 『日本外交史』 成文堂、p.136.

22) 満州国史刊行会編(1971) 『満州国史(総論)』 満蒙同胞援護会、p.567; 鳥山喜一(1935) 『滿鮮文化史觀』 刀江書院、pp.47-48.

수립이 동아시아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중국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과 중국 그리고 만주국이 참여하는 동아연맹을 구축하여 공산주의의 위협과 경제공황이라는 위기에 대처하자고 요구하였다.²³⁾ 동아연맹론은 정치적 독립을 전제로 공동안보와 경제통합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만주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요컨대 일본은 만주를 중국으로부터 확실하게 분리한 상태에서 지역통합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다.²⁴⁾

일본과 중국의 갈등과 대립은 결국 양국 간 전면적인 전쟁으로 이어졌는데, 이에 부담을 느낀 일본의 지도부는 동아연맹론으로 중국을 설득하여 빠른 시간 안에 전쟁을 종결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와 같이 동아연맹론은 일본의 군사안보적 필요성을 배경으로 전개된 지역통합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전쟁도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이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지리적 공간의 확보가 급선무였다. 즉 일본은 동아연맹을 구축하여 대규모 장기전에 필요한 물자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시와라 간지는 일미전쟁에서 일본이 패한 결정적 요인이 동아연맹을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한 데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²⁵⁾ 결과적으로 동아연맹은 일본의 국가적 운명이 걸린 사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자율성과 평등성을 표방한 동아연맹론은 당시 난징(南京)에 수립된 왕징웨이(汪精衛)정권의 지지를 받았지만, 중국 전체의 일본에 대한 분노를 완화시키지는 못하였다. 당시 일본은 구미열강과 다를 바 없는 제국주의노선을 추구하면서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침략전쟁을 확대해 나갔으며, 일본은 안보적 측면에서 역내외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주장한 동아연맹론이 지역적 공감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

23) 横山臣平(1980)『秘録 石原莞爾』芙蓉書房、pp.213-214.

24) 大杉一雄(1996)『日中十五年戦争史』中公新書、pp.47-48.

25) 角田順(1967)『石原莞爾資料』原書房、p.107.

리고 동아연맹은 일본이 표방한 바와는 달리 일본을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체를 의미하였다. 더욱이 동아연맹론은 일본의 천황(天皇)이 통치하는 팔굉일우(八紘一宇)를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전체주의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²⁶⁾

일본의 군사안보적 동기에서 비롯된 동아연맹론은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성과 강제성을 내재할 수밖에 없다. 군사적 측면에서 당시 일본의 목표는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본이 이 지역 국가들에게 공동의 적이 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동아연맹론에서 일본이 제시한 국방의 일체화는 침략을 통합으로 위장하려는 극단적 일국이기주의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질적으로 군사안보적 목적에는 군사력의 사용을 전제하기 때문에 동아연맹론은 잠재적으로 강제적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일본의 팽창과정을 고려한다면, 동아연맹론은 사실상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보다 광역적인 세력권 구축으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의 논리라고 볼 수 있다.

동아협동체론(東亞協同體論)은 일본과 만주국 그리고 중국이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역통합논리이며,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총리의 자문기구였던 쇼와연구회(昭和研究会)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²⁷⁾ 당시 일본정부는 중국과의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이를 타개할 방안들을 모색하였는데, 동아협동체론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제시되었다. 동아협동체론이 표면적으로는 국가별 특수성과 국가 간 평등성을 인정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획일적인 지역통합을 추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동아협동체론은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사실이다.

쇼와연구회의 문화부문 책임자였던 미키 키요시(三木清)는 중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반감이 급증하자 이를 완화시켜보려는 의도에서 자유주의 좌파적 요소를 가미한 동아협동체라는 일종의 지역공

26) 石原莞爾(1972) 『最終戦争論』 経済往来社, p.75.

27) 外務省外交資料館編纂(1979) 『日本外交史辞典』 大蔵省印刷局, p.216.

동체 개념을 제안하였다. 그는 일본의 중국에 대한 침략이 구미열강에 의한 중국의 식민지화를 방지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며, 결과적으로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또한 그는 양국의 충돌을 해소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념적 기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문화적 결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동아협동체론에서 제시하는 지역공동체적 논리가 대안이며 중국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⁸⁾

동아협동체론에서는 군사적 수단에 의한 강제적인 지역통합보다는 교류와 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지향하고 있는데, 다분히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미 침략행위를 자행한 상태에서 피해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동아협동체론은 동아시아지역의 동질성과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연방 형태의 통합체를 추구하였다. 특히 민족주의의 발흥을 경계하면서 이를 뛰어넘는 지역적 통합이 새로운 동아시아의 질서라고 표방하였다. 이는 당시 일본이 중국에서 민족주의가 고양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²⁹⁾ 결과적으로 볼 때, 동아협동체론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으로 포장하는 한편, 동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정치경제적 블록(Bloc)을 형성하는 데에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³⁰⁾

동아시아지역의 민족주의 극복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였던 동아협동체론이 나름대로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고민과 지역통합을 위한 보편적 가치의 모색이라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³¹⁾ 하지만 일본중심적인 사고에 따른 자기중심성과 현실과 유리된 관념적 성격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시 우려의 대상은 중국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일본의 민족주의였으며,

28) 内田弘編(2007)『三木清 東亞協同體論集』こぶし書房、pp.8-25.

29) 蠅山政道(1941)『東亞と世界』改造社、p.20.

30) 함동주(1999)「미키칠학과 동아협동체론」『이화사학연구』25·26, 이화사학연구소, pp.124-125.

31) 橋川文三(1970)「東亞新秩序の神話」『近代日本政治思想史』有斐閣、p.362.

이는 동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며, 일본의 국가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해야만 바뀔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침략국가의 본질적인 책임은 도외시킨 채 이익의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집착하였던 경제편향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속성들은 동아협동체론이 지역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하고 일방적인 지역통합논리에 머물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동아공영권론(大東亞共榮圈論)은 지역맹주의식(地域盟主意識)과 국가주의(Statism) 그리고 지정학(地政學)적 사고가 결합된 지역통합논리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이후 일본은 독일의 지정학자였던 하우스호퍼(Karl Haushofer)가 제시한 통합지역론(統合地域論)을 자국의 지역구상(地域構想)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하우스호퍼의 생활공간(Lebensraum)과 범지역(Pan Region) 개념은 당시 일본의 정책입안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³²⁾ 이모토 노부유키(飯本信之)는 국가유기체론(國家有機體論)을 토대로 국가의 운명은 충분한 영역의 확보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고마키 사네시게(小牧実繁)는 다민족과 다문화 그리고 하나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일본식 지정학을 제시하면서 독일지정학과 차별을 시도하였다.³³⁾ 또한 이시와라 간지는 하우스호퍼의 통합지역 개념을 동아시아지역에 적용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경제권 구축을 제안하였다.³⁴⁾

경제적 자급자족을 목표로 한 대동아공영권론은 점차 정치군사적인 세력권 구축으로 확대되었는데, 여기에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소련이라는 거대세력권에 맞설 수 있는 지리적 공간의 확보가 필요

32) 佐藤一莊郎(1944)『ハウスホーファー太平洋地政学解説』六興出版社、p.5.

33) 飯本信之(1935)『政治地理学研究』中興館、p.30; 佐藤健(2004)『日本における地政学思想の展開：戦前地政学に見る萌芽と危険性』『北大法学研究科ジュニア・リサーチ・ジャーナル』北海道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p.113; 小牧実繁(1940)『日本地政学宣言』弘文堂、pp.16-17.

34) 企画院研究会編(1948)『大東亞建設の基本綱領』同盟通信社、pp.123-124; 채수도(2017)『이시와라 간지의 만몽구상에 대한 연구: 팽창논리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日語文學』77, 日語文學会, pp.391-396.

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구미열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산업화로 인해 세계경제체제에서 일본의 입지는 열세에 놓여 있었으며, 더욱이 서구제국주의국가들과 같은 효율적인 식민지경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³⁵⁾ 일본이 만주에 집착하였던 데에는 바로 이러한 국가적 한계를 극복해 보려는 의도가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은 자국과 만주가 본성(本城)이고 중국을 성의 외곽이라고 규정하면서 만주를 영토화하여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하였다. 나아가 이 지역을 기반으로 대동아공영권을 구축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대동아공영권론은 근대 일본의 지역통합논리들을 완결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938년 일본정부의 국방국책안(国防国策案)에 나타난 대동아공영권은 동아시아, 인도, 호주, 태평양 도서를 아우르는 지역을 의미하며, 자존권과 방위권 그리고 경제권으로 세분화되어 있다.³⁶⁾ 이러한 지리적 범위는 대체로 하우스호퍼가 제시한 4대 통합지역 중 아시아권과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1940년 일본정부의 기본국책요강(基本国策要綱)은 대동아공영권을 일체화된 국방권역(国防圏域)으로 규정하고, 그 공간적 배치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적인 형태로 편성하였다. 이는 1921년 워싱턴군축회의(Washington Conference on Disarmament) 이후 미국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의식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대동아공영권론이 군사적 성격을 강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⁷⁾

대동아공영권론에서는 광역경제권 구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구미열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배타적인 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일본은 한국과 대만 그리고 만주와 중국북부만으로는 그 영역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서구제국

35) 森谷克己(1942)『東洋的生活圏』育生社弘道閣、p.308.

36) 兵頭二十八(2009)『近代未滿の軍人たち:兵頭二十八軍学塾』光人社、pp.186-194.

37) 角田順編(1970)『石原莞爾資料—国防論策編』原書房、p.246; 參謀本部編(1967)『杉山メモ—大本營・政府連絡會議等筆記(上)』原書房、p.177.

주의국가들의 식민지들이 포함되었는데, 이를 일본은 아시아지역의 해방이라고 선전하면서 역내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 하였다.³⁸⁾ 일본은 대동아공영권 내부의 국가들을 지도국, 독립국, 독립보호국, 직할령, 권내(圈内)외국령이라는 5가지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일본과 류큐(琉球), 대만, 한국, 만주, 중국본토, 동남아시아지역으로 내려오는 계층적인 구조를 설정하였다.³⁹⁾

대동아공영권론은 일본의 경제적, 군사적 필요성을 배경으로 제시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지역통합논리라고 할 수 있다. 대동아공영권 구축을 위해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은 공영(共榮)이 아닌 공멸(共滅)에 가까운 피해를 가져왔으며, 동아시아지역 국가들과는 무관한, 거의 전적으로 일본의 무모한 팽창정책이 야기한 결과이다. 이렇게 대규모 전쟁으로 귀결된 대동아공영권론은 태생적으로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군사력이라는 비평화적인 수단의 사용을 전제로 한 논리였다고 할 수 있다.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개념은 일본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공간이며, 일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영역을 의미한다. 또한 대동아공영권론은 획일적이고 불평등한 구조와 위계적인 질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통합이라기보다는 지역정복이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⁴⁰⁾ 사실상 대동아공영권론은 근대 일본의 지역통합론들이 내포한 부정적 측면들을 총체적으로 표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근대 일본의 지역통합론은 근대화의 성공과 전쟁에서의 승리에

38) 大川周明関係文書刊行会編(1998)『大川周明関係文書』芙蓉書房、pp.171-172.

39) 外務省編(1965)『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下)』原書房、p.344; 今井嘉一(1941)『大東亞共榮圈としての南洋』『朝鮮の教育研究(15)』朝鮮初等教育研究会、p.16; 임성모(2005)『대동아공영권 구상에서의 '지역'과 '세계』『세계정치』26(2),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pp.108-109.

40) 沢柳政太郎(1919)『亞細亞主意』大鏡閣、p.45; 大隈重信(1912)『經世論』富山房、p.38.

따른 자신감 그리고 허구적인 역사인식이 결합하면서 만들어진 우월의식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통합논리는 일방성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부정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당시 일본이 제시한 지역통합론들이 내포하고 있었던 일방성은 대체로 강제성과 위계성 그리고 이기성으로 정리되며, 여기에 획일성과 배타성을 추가할 수 있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리로 인식되는 다자주의적 가치에 반하는 속성들이며,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들이다. 지역통합에서 다자주의는 자발성과 평등성 그리고 호혜성을 기본적인 원리로 상정하며, 다양성과 개방성을 지향한다. 근대 일본의 지역통합론이 실패한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다자주의적 가치들을 도외시하고 일방성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아시아연대론과 대동합방론 그리고 대동아공영권론은 일본정부의 대외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데, 이는 근대 일본이 자행한 제국주의적 행태가 다름 아닌 일방적인 지역통합 시도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시 일본이 일으킨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만주사변과 태평양전쟁은 궁극적으로 일본 중심의 지역통합을 목표로 한 침략정책을 실천한 것이며, 근대 일본의 지역통합론이 내재한 일방성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적 공존공영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일본의 일방적인 지역통합 추진은 결국 동아시아지역 전체를 파멸적인 상태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부정적인 여파는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1세기 동아시아에서는 지역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지역강대국들은 근대 일본이 저지른 부정적인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과거 일본의 실패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한 국가의 일방성이 지역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며, 그 국가가 강대국일 경우에는 그렇게 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공동노력이 요구되며, 그 과정에서 이 지역 국가들이 다자주의적 가치에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자주의적 가치들은 지역통합뿐만 아니라 지역적 안정과 평화를 구축하는 데에도 유용

한 증거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려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재적 의미를 찾아야만 한다. 본 논문은 그러한 시도의 일정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경일(2016) 「근대일본의 전략적 사고에 대한 고찰: 세력권 구축을 중심으로」『선주논총』19, 선주문화연구소, p.154.
- (2003) 「6자회담과 다자주의: 일방성과 다자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중심으로」『국제정치연구』6(2),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pp.39-41.
- 박한규(2004) 「아시아주의를 통해 본 진전 일본의 동아시아 정체성」『일본연구논총』(20), 현대일본학회, pp.214-215.
- 임성모(1996) 「만주국 분단지배와 국민동원의 견인차」『민족문제연구』13, 민족문제연구소, p.24.
- 채수도(2017) 「이시와라 간지의 만몽구상에 대한 연구: 팽창논리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日本語文学』77, 日本語文学会, pp.391-396.
- 함동주(1999) 「미키칠학파 동아협동체론」『이화사학연구』25·26, 이화사학연구소, pp.24-125.
- 安部博純(1989) 「<大東亜共栄圏>構想の展開」『法政論集』16(3・4)、北九州大学法学会、p.96.
- 飯本信之(1935) 『政治地理学研究』中興館、p.30.
- 石原莞爾(1972) 『最終戦争論』經濟往来社、p.75.
- 今井嘉一(1941) 「大東亜共栄圏としての南洋」『朝鮮の教育研究』(15)、朝鮮初等教育研究会、p.16.
- 内田弘編(2007) 『三木清 東亜協同体論集』こぶし書房、pp.8-25.
- 内田良平(1936) 『統国体論及国史論集(2)』皇極社出版部、pp.5-6.
- 大川周明関係文書刊行会編(1998) 『大川周明関係文書』芙蓉書房、pp.171-172.
- 大隈重信(1912) 『経世論』富山房、p.38.
- 大杉一雄(1996) 『日中十五年戦争史』中公新書、pp.47-48.
- 大畑篤四郎(1993) 『日本外交史』成文堂、p.136.
- 角田順(1967) 『石原莞爾資料』原書房、p.107.
- 角田順編(1970) 『石原莞爾資料—国防論策編』原書房、p.246.
- 加田哲二(1933) 『明治初期社会思想の研究』春秋社、p.159.
- 河西晃祐(2005) 「外務省「大東亜共栄圏」構想の形成過程」『歴史学研究』(798)、青木書店、p.11.
- 外務省外交資料館編纂(1979) 『日本外交史辞典』大蔵省印刷局、p.216.
- 外務省編(1965)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下)』原書房、p.344.
- 企画院研究会編(1948) 『大東亜建設の基本綱領』同盟通信社、pp.123-124.
- 小牧実繁(1940) 『日本地政学宣言』弘文堂、pp.16-17.
- 佐藤一莊郎(1944) 『ハウスホーファー太平洋地政学解説』六興出版社、p.5.

- 佐藤健(2004)「日本における地政学思想の展開：戦前地政学に見る萌芽と危険性」『北大法学研究科ジュニア・リサーチ・ジャーナル』北海道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p.113.
- 沢柳政太郎(1919)『亜細亜主意』大鏡閣、p.45.
- 参謀本部編(1967)『杉山メモー 大本營・政府連絡会議等筆記(上)』原書房、p.177.
- 竹内好編(1977)『現代日本思想大系9』筑摩書房、p.30.
- 樽井藤吉著・影山正治訳(1963)『現代訳大東合邦論』大東塾出版部、p.25.
- 樽井藤吉(1975)『復刻大東合邦論』長隆書林、p.208.
- 鳥山喜一(1935)『満鮮文化史観』刀江書院、pp.47-48.
- 日本史籍協会編(1969)『大久保利通日記2』東京大学出版会、pp.339-340.
- 橋川文三(1970)「東亜新秩序の神話」『近代日本政治思想史』有斐閣、p.362.
- 埴薫藏(1924)『浦敬一奥附』淳風書院、pp.176-177.
- 旗田巍(1969)『日本人の朝鮮観』勁草書房、p.54.
- 兵頭二十八(2009)『近代未満の軍人たち：兵頭二十八軍学塾』光人社、pp.186-194.
- 松沢哲成(1979)『アジア主義とファシズム』れんが書房新社、pp.154-159.
- 満州国史刊行会編(1971)『満州国史(総論)』満蒙同胞援護会、p.567.
- 森谷克己(1942)『東洋の生活圏』育生社弘道閣、p.308.
- 横山臣平(1980)『秘録 石原莞爾』芙蓉書房、pp.213-214.
- 蛭山政道(1941)『東亜と世界』改造社、p.20.
- James A. Caporaso(1992)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multilateralism: the search for found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3), pp.601-602.
- John G. Ruggie ed.(1993)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Columbia University Press, pp.8-14.
- John G. Ruggie(1996) *Winning the Peace: America and the World Order in the New Era*, Columbia University Press, pp.20-21.

<Abstract>

Japan's Regional Integration Theory in the Modern Era
from the Viewpoint of Multilateralism
- Centering on the Critical Study on Unilaterality -

Kim, Kyung-II

Multilateralism is one of the theor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since the post-cold war, it has become a common form of co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ltimate goal of multilateralism in pursuing common interests through multilateral cooperation is the stability and pea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ltilateralism has the basic principles of spontaneity, equality and diversity, and components of common interest, principles and institutions, and comprehensive reciprocity. These concepts are universal valu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 may be the basis for analyzing the unilaterality of regional integration theory pursued by modern Japan. In this study, the logic of regional integration in modern Japan was analyzed through the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of multilateralism. The logic is Asian solidarity ideological-based on Asianism and the theory of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that covers five races under one union, League of East Asia, East Asian Cooperative Community,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examine more systematically the unilaterality of modern regional integration theory. And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this paper presented the universal values that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should aim for.

Key words : regional integration, multilateralism, unilaterality, Japan, East Asia

투 고 일 : 2019년 10월 14일
심 사 일 : 2019년 10월 18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1월 9일